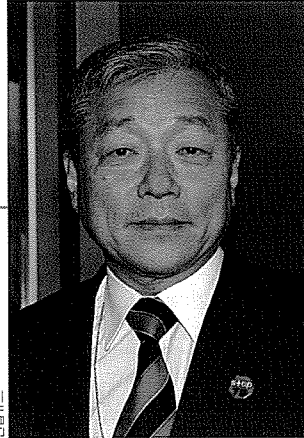


세계 질병퇴치 책임자 된 '백신의 황제'

WHO 사무총장 당선 이종욱 박사



최 고의 백신 전문가로 꼽히던 이종욱(58) 박사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박사의 사무총장 당선은 한국인

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기구의 수장 자리에 오른 쾌거. 이 일은 올림픽 개최, OECD 가입, 월드컵 4강 신화 등으로 줄기차게 세계무대에서의 위상 강화를 꾀해온 우리로서는 또 한번 세계에 우리의 위상을 드높일 호재다.

“무거운 짐을 떠맡은 것 같아 큰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정부와 의료계의 지원이 당선에 밑바탕이 되었습시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이 국제기구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사실 이 박사의 당선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기쁜 소식. 우리나라가 WHO에 가입한 해는 1949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 산하기구 가운데 가장 크고 역사가 긴 전문기구의 수장을 배출한 것이다. 연간 예산 규모가 11억 달러나 되는 WHO는 직원 수만 해도 3500명이나 되는 큰 기구이다. 지난해 11월쯤 출마 의사를 내비쳤을 때만 해도 그의 당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유엔 에이즈 프로그램 사무국장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의 지지를 받았던 벨기에 출신의 피터 피어트

후보, 모잠비크의 마구엘 모쿰비 후보가 만만치 않은 경쟁상대였기 때문이다. 쟁쟁한 상대 후보들을 꺾고 이 박사가 당선된 데에는 그의 소아마비 퇴치에 대한 기여, 2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WHO에 헌신했다는 경력이 작용한 듯하다.

이박사는 1983년 WHO 남태평양 지역 사무소 한센병 관리 책임자로 WHO와 인연을 맺어 소아마비 퇴치에 큰 공을 세웠다. 1995년 소아마비에 걸릴 확률을 세계 인구 1만명당 1명 이하로 낮추어 박멸에 가까운 성과를 올렸다. 그 당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그에게 '백신의 황제'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1998년 허를렘 브룬틀란트가 사무총장이 된 뒤로 그는 총장 특별대표직, 결핵국장직 등 WHO의 정책부서를 두루 거쳤다. 결핵국장을 맡았을 때는 북한에 6만 명분의 결핵 약을 공급하기도 했고 세계 여러 나라의 결핵 퇴치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오는 7월에 취임하는 그는 WHO가 역점을 둘 분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질병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입니다. 이 질병들을 퇴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난치병을 물리치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질병을 퇴치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 남북 교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 허주희 | 사이언스올제 기자

서울대 의대 졸업. 미국 하와이대에서 공중보건학 전공. 1983년 WHO 남태평양 지역 사무소 한센병 관리 책임자로 WHO와 첫 인연. 이후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 질병 관리국장, WHO 본부 예방백신국장, 세계아동백신 사무국장 등 역임